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82]228-0180

光州日報

VIP 30인 생애보험, 영수증인 www.dhbank.com
생애년의 연인, 임영란이 찾아드립니다.
 대표이사 임영란, 생애보험
 광주지사 062)228-3222

The Kwangju Ilbo



소망의 벽과 통곡의 벽

국립 5·18 민주묘지 역사의 문 뒤편에 들어선 '소망의 벽'(왼쪽). 5·18광주민중항쟁 26주년을 기념해 만든 이 벽은 예루살렘 '통곡의 벽'처럼, 광주시민들의 한(恨)과 서원(誓願)을 대변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오늘 5·18 제26돌

盧대통령·여야대표 등 참석 기념식

5·18 광주민중항쟁 제26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3부 요인 등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한 세계 민주인사와 유족, 5월 단체 회원,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된다.

〈관련기사 10·11면〉

특히 이번 26주년 기념식에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한화갑 대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등 주요 정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날 기념식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헌화·분향에 이어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정수만 회장의 경과보고, 가수 장사익씨와 부산·광주시합창단의 기념공연, 노 대통령의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는 전국에서 몰려든 참배객들로 추모 열기가 절정에 달했다. 또 부산과 대구, 전주, 대전 등 전국 대도시에서도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려 전국적으로 추모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주관으로 유족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또 이날 오후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서 열린 전야제 '2006 임을 위한 행진곡'에는 시민과 전국에서 몰려든 추모객 등 2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5월 정신계승을 다짐했다. 전야제에서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1천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군과 계엄군이 맞서는 80년 당시 상황을 그대로 연출했다.

풍물패와 일본 진보적 음악활동 그룹인 '우타고에'의 공연 등이 뒤를 이었으며 ▲초·중·고생 100여명의 혼불모심 ▲2006 광주 5월 선언 ▲시민들의 광주출정가 제창 등으로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최필림기자 cki@

나라 잃은 설움·가족 잃은 아픔 담긴 역사적 상징성 닮은 꼴

기독교·이슬람교·유대교 등 세계 3대 종교의 성지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Wailing Wall)이 있다면, 민주 성지 광주에는 '소망의 벽'이 있다.

서기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는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모든 유대 신전을 파괴한 뒤 솔로몬왕이 세웠다는 신전의 서쪽 외곽벽(길이 60m·높이 16m)만 남겨둔다. 티투스는 또 유대민족을 예루살렘에서 추방해 버린다. 이후 유대민족은 자그마치 1천878년동안 뿔뿔이 흩어져 남의 나라를 전전하는 방랑자가 되고, 서쪽 벽은 유대인들에게 귀환의 꿈을 기원하는 '통곡의 벽'이 됐다.

5·18 26돌 기념 '소망벽' 세워

1980년 5월 광주는 계엄군에 의해 짓밟혔다. 민주화를 외치던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꽃잎처럼 금남로에 쓰러졌고, 살아남은 이들은 교도소로 끌려갔다. 26년 뒤,

예루살렘엔 '통곡의 벽' 광주엔 '소망의 벽' 있다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역사의 문 뒤편에는 '소망의 벽'이 세워졌다. 묘지관리사무소가 지난 12일 신 묘역에서 구 묘역으로 가는 길 오른쪽에 있던 높이 2m·길이 165m의 콘크리트 벽에 흰색 페인트를 칠해 5·18에 대한 소회와 기원 등을 새겨 넣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스라엘 독립 전까지 유대인들의 인사는 "내년에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만나

자"였다. '통곡의 벽'은 단결과 희망의 상징이었으며, '디아스포라'(Diaspora·離散)의 끝을 의미했던 것이다. 꿈에 그리던 유대 국가의 재건이고, 정신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사원(寺院)이었다.

진상규명·평화·통일 기원

'소망의 벽'은 진상규명 등 미완의 과제 해

결을 염원하고 평화와 화해·통일을 기원하는 성소(聖所)가 됐다.

참배객들은 핏빛 물감으로 '우리들의 고통은 언제 끝날 것인가, 어딘가에서 아직도 울고 있을 그들을 구해주세요' 라고 써 진상규명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 정성스럽게 그린 꽃 일 하나 하나에 '광주·대구·부산' 등을 새겨놓고 '더 이상 지역감정은 없다'는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적어놓기도 했다. '이제 통일만이 남았다'는 각오도 보인다.

지난 1967년 이스라엘 정예공수부대는 이집트 군과의 '6일 전쟁'에 승리한 후 예루살렘에 입성, 1천878년만에 '통곡의 벽'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유대민족의 '한'을 풀 것이다.

그러나 항쟁 26년을 맞는 광주시민에게는 최초 발표명령자를 밝혀내는 일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그것은 오늘, '소망의 벽'에선 '살아남은 자'의 몫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광주·전남 경쟁률 2.9대1... 사상 최고

지방선거 D-13

1,206명 등록... 잠정 집계

5·31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1천206명이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돼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같은 경쟁률은 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

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다. 유급화된 지방의회의 문을 두드리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배 가까이 늘어난데 전문직과 여성의 진출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의 경우 광주시장 선거에 4명, 구청장 23명, 시의원 62명, 구의원 선

거에는 216명 등 모두 305명이 등록해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개 구청장 선거에는 모두 23명이 등록해 4.6대 1로 가장 경합이 치열했다.

전남은 전남지사 선거에 4명, 시장·군수에 64명, 도의원 145명, 시·군 의원에 688명 등 모두 901명이 등록해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남지사 선거가 4대 1로 가장 높았고 시장·군수는 2.9대 1, 광역·기초

의원들 각각 2.8대 1로 집계됐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때 광주는 평균 2.5대 1, 전남은 2.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재산면에서는 40억원이 넘는 재력가도 있었지만 빛이 더 많아 재산이 '마이너스'인 후보자도 100여명에 달하는 등 빈부차가 뚜렷했다.

특히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 가운데 18.9%인 50명이 병역미필자로 파악됐고, 13.2%가 범죄전력을 갖고 있는데다 세금도 한 푼도 내지 않은 후보도 적지 않아 선거전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34.4%, 열린

우리당 24.2%, 민주노동당 5.7%, 한나라당 1.6% 등이었고 지난 2002년 보다는 줄었지만 무소속도 33.5%나 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후원회비 장학 50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5000-1
 새세대 창시자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 상담전화 062-3551 ▶ T.061-360-5000

DJ 내달말 평양 방문

南北, 3박4일 일정 합의

남북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6월 하순 3박4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는데 합의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DJ 방북' 실무대표단은 17일 북측 금강산호텔에서 이틀째 북측 대표단과 만나 방북시기, 경로, 방북단 규모 등 DJ 방북 문제에 대해 협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 당국자는 "북측은 김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에 동의하고 이를 환영하며 초청자측으로서 예우를 다해 맞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방북시기와 관련, 양측은 6월 하순에 3박4일 일정으로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면서 "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북 경로와 관련, 북측은 'DJ가 열차를 통한 방북을 희망한다'는 우리 대표단의 의사를 전달받고 '직항로를 이용해 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북측이 1차 실무접촉에서 열차방북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후 협의에서 북측이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DJ의 열차 방북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남북 양측은 오는 5월 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속개, 방북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8일부터 인터넷 광고 개시... 후보자·유권자 모두 '원 원' 선택
 www.kwangju.co.kr를 클릭하시면 지역의 미래가 열립니다
 후보자마다 인터넷 광고 개시... 선거운동기간에도 계속 접수 받습니다

광주일보 062-227-9600